

## ‘국민문학’의 기획과 ‘신지방주의’론\*

—김종한, 최재서를 중심으로

천 춘 화\*\*

### 요약

이 글은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신지방주의’는 김종한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은 최재서였다. 본고는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은 먼저 김종한에 의해 새로운 ‘지방’ 개념이 제시되었고 최재서가 그 ‘지방’ 개념을 조선문학에 대입하여 ‘신지방주의 문학론’으로 발전시키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음을 밝혀내고자 했다. 지금까지 김종한의 ‘신지방주의’는 『一枝의 윤리』(『국민문학』, 1942년 3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의 ‘신지방주의’를 완성시킨 글은 『본연의 자세에 대한 담의(1~4): 신지방주의문화의 구상(ありかた談義(1~4): 新地方主意文化の構想)』이었고 그가 이런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었던 이론적 근거는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었다. 그리고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지방주의 문학론’이었고 그 핵심은 ‘조선적인 독창성’이었다. 이것이 식민지말기 조선 지식인들이 고집했던 조선문학의 길이었고 이러한 주장은 일본지식인들과의 반복적인 공방을 겪으면서도 끝내는 통일적인 견해로 이어지지 못했다. ‘신지방주의론’의 전개 과정은 『국민문학』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표면화 과정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국민문학’의 한 이상이기도 했다.

주제어: 『국민문학』, ‘국민문학’, 지방, 신지방주의, ‘신지방주의 문학론’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8S1A5A2A03033890)

\*\* 원광대학교 HK+동북아다이멘션연구단 HK연구교수

목차

1. 시작하며
2. 김중환의 '신지방주의'와 '大東亞'의 지정학
3. 최재서의 '신지방주의 문학론'과 스코틀랜드문학
4. '조선문학'의 길, '국민문학'의 아포리아
5. 맺으며

## 1. 시작하며

‘국민문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 후, 특히 1940년대 들어 신체제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 먼저 일본 내지에서 국민문학론이 대두하였고 그 영향을 받은 조선에서는 ‘조선문학 전환론’이 등장하였다가 ‘국민문학’ 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다.<sup>1)</sup> 일본 내지에서의 국민문학론의 대두는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관련되는 문제였는데, 중일전쟁에서 중국의 예상외의 저항에 당면한 일본은 ‘민족국가’라는 개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발견 속에서 민족국가적 자각을 심화시키기 위한 국민 주체의 재정립과 통합이 요청되었다. 고노에 내각(近衛内閣)의 신체제운동이 전개되면서 일본에서는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의 “이제부터 국민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해보자”라는 구호 아래 국민문학 논의가 전개되었고, 그것이 바로 1940년 11월, 12월 여러 문학지에서 전개된 ‘국민문학’을 둘러싼 좌담회와 특집들이었다.<sup>2)</sup>

『국민문학』은 국민의식의 형성을 통한 국민 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는 전시동원체제의 문예동원의 일환이었고 그것은 일본 발 ‘국민의식’의 재

1) 최재서, 『국민문학의 입장』, 노상래 옮김, 『전환기의 조선문학』,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7, 91면.

2) 미하라 요시아키 지음, 임경화 옮김, 『국민문학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4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194~198면.

발견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했다. 『국민문학』은 출발부터 제국의 국민통합이라는 식민지 지배 규율의 속박을 받으면서 문예동원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학의 시국적인 부응, 특히 문학을 통한 ‘국민의식’의 형성이라는 목표는 『국민문학』뿐만 아니라 『國民總力』(1941년 1월 창간), 『國民詩歌』(1941년 9월 창간)<sup>3)</sup>, 『國民詩人』(1945년 2월 창간) 등과 같은 잡지의 창간에서도 드러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문학』은 창간과 함께 새로운 ‘국민문학의 수립’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국민문학’에는 정해진 형태나 성격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문학’은 새롭게 만들어야 가야 할 대상이었고, 『국민문학』이 당면한 첫 번째는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을 어떻게 재출발시킬 것인가의 문제였다. 제국의 논리 속에서 식민지 조선은 제국의 한 지방이었고 동일한 맥락에서 조선문학 역시 일본문학의 한 지방문학으로 존재해야 했다. 제국의 지방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이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일본문학에 완전히 동화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적인 특수성을 보존하면서 지방문학으로 존재하는 길이였다.<sup>4)</sup> 제국/식민지, 중앙/지방의 종속적인 관계를 타파하고 ‘지방에 중앙을 건설하자’는 참신한 기치를 들고 나온 김종한의 ‘신지방주의’는 ‘지방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이 제국의 질서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한 방법론이었고, 이런 맥

3) 최현식, 『일제 말 시 잡지 『國民詩歌』의 위상과 가치(1): 잡지의 체제와 성격, 그리고 출판 이데올로기들』, 『사이間SAI』14, 국제한국문학문화연구회, 2013; 최현식, 『일제 말 잡지 『國民詩歌』의 위상과 가치(2): 국민시론·민족·미의 도상학』, 『한국시학연구』40, 한국시학회, 2014.

4) “최재서: 왜 이 문제(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필자 주)가 제기되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조선문학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적인 성격, 자신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화 할 수 없는 사고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니, 그렇지 않다 조선적인 것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결국엔 나라를 위한 일이 되지 않겠냐는 것인데, 그것이 추상적일지도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지도이론으로 생각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좌담회: 조선문단의 재출발을 말한다』, 문경연 외,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37면.)

락에서 당시 다수 조선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신지방주의’의 등장 배경과 이를 토대로 한 ‘신지방주의 문학론’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둔다.

‘신지방주의’론에 대한 최초의 주목은 윤대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①‘신지방주의’는 조선지식인들이 시국에 협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었고, ②제국 일본에서 조선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길이었으며 ③나아가 그것은 그들이 상상한 대동아공영권은 중심이 확장된 제국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이 없이 권력이 편제된 제국적인 형태였다는 점에서 그의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sup>5)</sup> 이후 ‘신지방주의’는 김종한 연구의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부류는 ‘신지방주의’와 향토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이고 다른 한 부류는 창작과정에서 ‘신지방주의’의 실천 양상을 검토한 연구이다. 전자의 경우는 박수연의 연구가 대표적이고 후자의 경우는 박지영을 들 수 있다. 박수연은 김종한을 중심으로 일제말의 향토론을 고찰하면서 김종한의 ‘신지방주의’에서의 향토는 궁극적으로 에스니시티의 문제이고, 민족주의와는 무관한 소재적 차원의 것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sup>6)</sup> 이런 맥락에서 고찰하면 『설백집』에서 백석 시의 향토적인 요소는 김종한의 ‘신지방주의’ 관점에서 오독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sup>7)</sup> 한편 박지영은 김종한의 번역시집 『설백집』 연구의 한 부분에서 김종한의 ‘신지방주의’를 조명하고 있다. 그는 ‘신지방주의’는 제국의 논리를 전유함으로써 전체와 부분, 그 관계 속에서 탈중심화와 전복을 상상한 것이며 일본어 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일본문학의 헤게모니에 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8)</sup>

5) 윤대석,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 사에쿠사 도시카쓰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258-259면;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27-30면.

6) 박수연, 『신지방주의와 향토: 김종한에 기대어』, 『한국근대문학연구』25, 한국근대문학회, 2012.

7) 박수연, 『로컬의 낭만, 식민의 실제: 김종한의 『설백집』과 백석의 만주시편』, 『비평문학』74, 한국비평문학회, 2019, 119면.

다시 박지영은 김종환을 축으로 『국민문학』 수록 시들을 고찰하면서 ‘국민시’ 쓰기를 ‘신지방주의’의 한 실천으로 간주하고자 했다<sup>8)</sup> 이처럼 김종환의 ‘신지방주의’에 대한 연구는 『국민문학』의 자장 안에서 행해졌다기 보다는 김종환 연구의 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신지방주의’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도 고찰된 바가 없다.

『국민문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신지방주의’는 편집자였던 김종환, 최재서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하지만 최재서에 관한 연구에서 ‘신지방주의’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지방주의’의 문제는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을 조명하는 과정에 ‘국민문학론’의 ‘조선적인 것’<sup>10)</sup>의 문제나 ‘로컬리티’<sup>11)</sup>의 문제로 주목되었을 뿐이다. 연구자들은 ‘국민문학론’의 논리를 추적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 사실은 ‘신지방주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에는 크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사실 김종환의 ‘신지방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최재서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론화하고자 노력한 사람도 최재서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종환의 신지방주의론’과 ‘『

- 8) 박지영, 『김종환 『설백집』 연구: 번역과 일제말기 조선문학의 혼종성』, 『세계문학비교연구』 53, 세계문학비교학회, 2015.
- 9) 박지영, 『김종환과 『국민문학』의 시인들: 일제말기 ‘국민시’ 연구』, 『외국문학연구』 73,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9.
- 10) 전형기 비평담론에서 ‘조선적인 것’은 식민지라는 특수성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내선일체의 불가능성이 확인되는 곳이었고, 1940년대 초반 국가총동원이라는 신체제 운동이 문학적 표현으로 등장한 ‘국민문학’은 이 불가능성을 국가주의의 수준에서 봉합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평하고 있다.(고봉준, 『전형기 비평의 논리와 국민문학론: 최재서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268면.)
- 11) 최재서에게 ‘로컬리티’는 ‘국민문학’이라는 공적 영역 안에 ‘조선문학’을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파악되었다.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이라는 독특한 로컬리티는 공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사적인 영역으로 물러나지 않기 위한 방도였다. 최재서가 국민문학론을 토대로 구사했던 프로파간다의 복합적인 면모는 바로 이러한 아비투스과 로컬리티 사이 그 틈새에 존재한다는 것이었다고 보았다.(곽은희, 『감각의 조형술: 아비투스과 로컬리티 사이』,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에 대하여』, 『인문연구』 7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28면.)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은 김종환, 최재서 두 사람에 의해 단계적으로 발전되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김종환의 ‘신지방주의’의 전개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3장에서는 ‘국민문학론’의 전개 과정에서 최재서가 김종환의 ‘신지방주의’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4장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이 당시의 조선지식인들과 일본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국민문학』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신지방주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김종환의 ‘신지방주의’와 ‘大東亞’의 지정학

김종환(1914~1944)이 『국민문학』에서 근무한 기간은 1942년 2월부터 1943년 7월까지이다.<sup>12)</sup> 비록 근무 기간은 길지 못했지만 그의 ‘신지방주의’는 식민지말기 조선문학의 존재 방식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직접적으로 ‘신지방주의’에 대해 논한 글은 두 편 정도이다. 하나는 잘 알려진 『국민문학』에 한글로 발표한 「一枝의 윤리」(『국민문학』, 1942년 3월)이고 다른 하나는 『京城日報』에 일본어로 발표한 「본연의 자세에 대한 담의(1~4): 신지방주의문화의 구상(あり)かた談義(1~4): 新地方主意文化の構想」(『京城日報』, 1942.4.14.~18)이다. 두 편의 글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발표되었고 모두 ‘신지방주의’론을 전개하고 있는 글들이지만 지금까지 김종환의 ‘신지방주의’는 주로 「일지의 윤리」를 중심으로 고찰되었다. 하지만 두 글을 놓고 보면 「일지의 윤리」에서는 새로운 ‘지방’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본연의 자세에 대한 담의(1~4)」에서 비로소 ‘신지방주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12) 후지이시 다카요, 「김종환과 국민문학」, 『사이間SAI』창간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6, 138면.

『국민문학』 1942년 3월호에 한글로 처음 발표된 「一枝의 윤리」는 7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神話라는 것’, ‘原理라는 것’, ‘主題라는 것’, ‘永遠이라는 것’, ‘國民文學이란 것’, ‘政治라는 것’, ‘地方이라는 것’ 등으로 구성된 이 글은 ‘국민문학’에 대한 김종한의 포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논평 중의 하나이다. ‘국민문학의 정치적인 성격, 주제의 문제, 창작의 문제, 작가의 문제 등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잘 알려진 새로운 ‘지방’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이라는 것’에서이다.

지방경제와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변이래의 일이지 만 전체주의적인 사회기구에 있어서는 동경도 하나의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것입니다. 라기보담 지방이나 중앙이란 말부터 정치적 친소를 부수하여 좋지 않은듯합니다. 동경이나 경성이나 다 같은 전체에 있어서의 한 공간적 단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경우의 중앙이라든가 전체라든가 하는 것은 국가란 관념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방문화나 문학이 자율해가야 할 또 하나의 중대한 조건은 그것이 위치하는 지정학적 성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독부에서 간행한 『躍進朝鮮의 意氣와 進路』 팜플렛을 읽으면 동아의 중심으로서의 조선이란 슬회가 우리에게 무한한 지정학적 사명과 자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경문단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하겠으나 그러나 또한 우리는 먼 후일 문화적으로도 동아의 중심으로서의 조선을 건설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sup>13)</sup>(강조·인용자)

제국의 지방으로서의 조선 이것이 제국 질서 속에서의 일본과 조선의 종속적인 관계이다. 그런데 김종한은 조선과 일본을 대등하게 등치시킴으로써 종속적인 관계를 전복시키고 있다. 동경이나 경성이나 전체적인 단위에서 보면 모두 동등한 한 단위, 한 부분으로서의 지방에 불과하다는

13) 김종한, 「一枝의 倫理」, 『국민문학』, 1942년 3월, 41~42면.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것이 또한 ‘신지방주의’가 당시 조선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김종한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근거이다.

조선 경성이 일본 동경과 동등한 위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서의 조선이 동경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위상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한 위상을 김종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다. 그는 우선 전쟁의 장기화가 초래하는 수급의 문제부터 제기한다. 전쟁의 장기화는 농산물 생산량의 저하와 물자 소비량의 확대를 초래하고, 전쟁 필요에 의한 인력의 징발과 도시로의 노동력 집중 현상은 결과적으로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전쟁의 장기화가 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발전추세라는 것이다. 김종한은 이러한 전쟁의 장기화가 초래하는 병폐를 언급하면서 조선 쌀의 일본 수출 현황을 예로 들고 있다. 소화 13년도 조선 쌀의 일본 수출량은 1천만 석을 돌파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제국의 전시식량문제의 해결 방책은 조선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사실 조선 쌀의 일본 수출 문제는 김종한이 『婦人畫報』의 기자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언급한 바 있는 문제<sup>14)</sup>이다. 김종한이 이와 같은 조선의 쌀 수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본은 1939년 7월부터 쌀을 일본의 군수물자로 쓰기 위해 하루 한 끼 죽을 먹게끔 강제하는 ‘죽 먹기운동’을 펼쳤고, 1940년 5월부터는 ‘한 손가락 덜 먹기운동’ 등과 같은 절미운동을 병행했다. 1940년부터는 전시 식량조달의 목적으로 공정가격에 의한 공동판매 형식이 시작되었고, 이마저도 1941년에는 아예 강제화되었다. 그리고 1942년에는 쌀 생산량의 55.8%를 공출해갔다.<sup>15)</sup> 이런 점

14) 김종한, 『朝鮮の米』, 藤石貴代·大村益夫·沈元燮·布袋敏博 編, 『金鍾漢全集』, 綠蔭書房, 2005, 110~111면. 이하 김종한의 텍스트는 전집에서 인용할 것이며 작품명과 인용 면수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15) 강준만, 『쌀, 노동, 목숨의 강제공출』, 『한국 근대사 산책 창씨개명에서 8.15해방까지』, 인물과사상사, 2008, 99~104면.



을 감안할 때 전시 쌀 공급지로서의 조선의 위상은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이와 같은 조선의 역할을 길게 설명한 것은 결국 농촌에서 열심히 경작하고 있는 조선농민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시식량 공급지로서의 조선의 위상은 지방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상을 지니며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농민들은 전선의 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에 비견되는 존재들인 셈이다. 때문에 조선의 농민들은 지방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런 자부심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지역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선은 지방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대동아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했다. 김종한은 총독부에서 간행한 『躍進朝鮮의 意氣와 進路』라는 팜플렛의 문구인 “동양의 중심은 조선”을 언급하면서 지방문화로서의 조선문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지의 윤리』는 ‘대동아의 중심으로서의 조선의 위상을 지방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문화적인 측면에서 부각시키고자 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경제적 측면에서의 조선의 위상은 조선 쌀의 수출을 통해 증명되었지만 지방문화로서의 조선의 중심적인 위상은 앞으로 구축해 가야 할 목표였다. 이러한 지방문화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그는 『본연의 자세에 대한 담의(1~4): 신지방주의문화의 구상(ありかた談義(1~4): 新地方主意文化の構想)』에서 전개시키고 있다.

『본연의 자세에 대한 담의(1~4): 신지방주의문화의 구상』은 ‘역사에 대하여’(『ありかた談義 (一) : 歴史について』), ‘신화에 대하여’(『あいかた談義 (二) : 神話について』), ‘지리에 대하여’(『あいかた談義 (三) : 地理について』), ‘지방에 대하여’(『あいかた談義 (四) : 地方について』)와 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역사에 대하여’ 부분에서는 기존의 지방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화에 있어서 지방주의라는 것은 중앙에

지방을 “가설(假設)”하고자 하는 현실탈출의 정신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안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향토적인 세계주의 생활양식을 대표하는 도회에 있어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도회인의 향수의 감정입에 이용되었던 일종의 관념적이고 비실재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문학적인 측면에서 지방주의라는 것은 지방의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중앙 문단에 “읍소”하는 그런 작가적인 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장혁주나, 김사랑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덧붙인다.<sup>16)</sup> 이를 테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방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회생활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향수의 대상이며, 문학적인 측면에서 지방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대해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중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보았다

‘신화에 대하여’에서 김종한은 서두에서 일본 시인 아사노 아키라(淺野晃)를 대표로 하는 낭만파들이 가지고 있는 낭만주의적인 경향을 언급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자신도 자신만의 신(神)을 가지고 싶다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주목되는 부분은 그가 내리고 있는 신에 대한 정의이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의욕의 ‘방향성’을 신뢰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아공영권의 건설을 긍정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17)</sup> 언급한다. 그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신념이자 믿음의 하나였고 그것은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방문화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김종한은 말하기를 스스로의 신을 가진 사람들, 즉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만약 도회인이라면 도시에 지방을 가설(假設)하고 거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부실한 생존법”을 실천하지 말 것이며, 당신이 만약 지방인이라면 지방현실에 불만을 품고 중앙으로 진출하여 갈채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경박한 작가적 태도를 포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16) 金鍾漢, 『ありかた談義(1) : 歴史について』, 441면.

17) 위의 글, 442면.

고 한다.<sup>18)</sup>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에서의 역할이었다. 이는 김중환이 『일지의 윤리』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지방에서의 안심입명(安心立命)”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어지는 ‘지리에 대하여’와 ‘지방에 대하여’에서는 『일지의 윤리』에서의 ‘지방에 대하여’ 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쌀의 수출 문제가 그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조선 쌀 수출 문제를 예로 들면서 지방경제적인 측면에서 조선의 중요한 위상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신지방주의’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다. ‘신지방주의’는 국가에 있어서 지방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며, 국민으로서의 지정학적 자각에서 출발한 지방에 중앙을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의식이며 문화운동의 하나라고 규정한다.<sup>19)</sup> 즉 ‘신지방주의’는 하나의 국민의식이었고, 일종의 문화운동으로서 구상되었던 것이다. 그가 말하는 국민의식이라는 것은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었고 문화운동으로서의 ‘신지방주의’는 지방의 작가들이 중앙문단만을 흠모하고 숭앙할 것이 아니라 지방문학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였음이 명백해 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지방주의’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그것은 국가에 있어서 지방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고 국민으로서의 지정학적 자각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김중환이 ‘지방문화’를 설명하면서 다시 또 조선 쌀의 수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와 같은 ‘신지방주의’의 전제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지방문학’은 ‘신지방주의’에서 ‘지방문학’은 중앙문단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방의 “본연의 자세”를 잘 살리는 것이 본질이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전체와 부분, 그리고 전체와 부분을 파악하는 지정학적 인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 위의 글, 442면.

19) 金鍾漢, 『ありかた談義(4) : 地方について』, 444면.

김종한이 『일지의 윤리』와 『본연의 자세에 대한 담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독일 지정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라첼(Ratael)과 하우스호퍼(Haushofer)에 대한 언급이다. 이들을 언급하면서 그는 현재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독일의 통치 핵심이 바로 지정학임을 거듭 강조한다.<sup>20)</sup> 김종한이 라첼과 하우스호퍼를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본에 체류했던 193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정학 연구의 붐이 한창이었기 때문이다.<sup>21)</sup> 일본에서 하우스호퍼의 수용은 1926년부터 시작되었고 1940년대 초반 정점에 이른다. 1944년까지 약 10여권의 저서가 번역 소개되었고 그의 주저인 『태평양 지정학』은 무려 3회에 걸쳐 번역되는 일종의 과열양상을 보이기도 했다.<sup>22)</sup> 김종한이 『태평양 지정학』을 접한바 있음은 『본연의 자세에 대한 담의』에서 확인된다. 그는 하우스호퍼가 ‘태평양 지정학에서 반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sup>23)</sup>

하지만 일본사람들을 흥분시킨 것은 『태평양 지정학』보다는 ‘대륙블록’ 이론이었다. 독려-일을 중심으로 하는 하우스호퍼의 초반의 대륙블록 이론은 그가 일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일의 생존권 확대 방향을 일본이 아닌 동구로 결정하고 앵글로색슨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일본을

20) 金鍾漢, 『ありかた談義(4) : 地理について』, 443면.

21) 일본에서는 1920년대 말경에 지리학과 외교사를 다루는 전문잡지에 독일의 게오폴리틱(Geopolitik)이 소개되었고, 게오폴리틱은 지정학 혹은 지정치학으로 번역되다가 서서히 지정학이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래 총력전 체제하의 국책영합적 운동의 일환으로서 지리학자를 중심으로 한 게오폴리틱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게오폴리틱운동의 중심적 존재였던 하우스호퍼가 젊었을 때 일본에 체류한 적이 있어서 일본과 아시아 관련 저작이 많았던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다가기 아키히코, 『지정학과 언설』, 미즈우치 도시오 편, 심정보 옮김, 『공간의 정치지리』, 푸른길, 2010, 23-24면.)

22) 이진일, 『생존공간(Lebensraum)과 ‘大東亞共榮圈’ 담론의 상호전야: 칼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적 일본관을 중심으로』, 『독일연구』29, 한국독일사학회, 2015, 218면.

23) 김종한, 앞의 글, 443면.

선택하였던 맥락에 놓이는 것이었다.<sup>24)</sup>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이론이 독일이 일본을 독일과 평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것임과 동시에 일본을 극동 지역의 지배자로 인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sup>25)</sup> 이어 하우스호퍼의 대륙블록 이론이 고마키 사내시게(小牧實繁)를 대표로 하는 ‘교토학파’들에 의해 수용되면서 ‘일본지정학’이 성립되었고 그것이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으로 이어진 것이다.<sup>26)</sup>

대동아공영권 구상이 국책으로 확립된 것은 1940년 7월 제2차 고노에(近衛) 내각의 각의(閣議)가 결정한 『기본국책요강(基本國策要綱)』에서였고 ‘대동아공영권’이란 표현이 공식화된 것은 1940년 8월초 이 요강을 설명한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외상의 발언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이미 1938년에 ‘대동아공영권’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음이 발견된다. 육군성과 참모본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국방국책안(國防國策案)』에 따르면 대동아공영권은 ‘자존권’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적 계층질서에 따라 ‘자존권’, ‘방위권’, ‘경제권’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대동아공영권의 핵심인 ‘자존권’을 구성하는 지역은 일본열도와 만주, 몽골이었다. 그러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부터는 그 범주가 동남아 지역으로 크게 확대되고 이후 전선의 이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를 거친다.<sup>27)</sup> 대동아공영권의 권역이 크게 확대되어갔지만 대동아의 핵심은 여전히 ‘자존권’으로서의 ‘일만지 블록’이었고 이때 조선은 일본과 함께 ‘일본’ 또는 ‘내지’로 칭해졌다. 김종환이 인용하고 있는 팜플렛의 문구 “대동아의 중심은 조선”이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종환은 하우스호퍼가 『태평양 지정학』에서 조선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신지방

24) 채수도, 『전전(戰前) 일본지정학의 성립과 전개』, 『大丘史學』139, 대구사학회, 2020, 12면.

25) 이진일, 앞의 글, 220면.

26) 채수도, 앞의 글, 17-25면 참조.

27) 임성모,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의 ‘지역’과 ‘세계』, 『세계정치』제26집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2005, 107-108면.

주의를 전개시킨바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그의 ‘신지방주의’론의 근거에는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을 기반으로 하는 대동아 지정학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발전시킨 것이 “지방에 중앙을 건설하자”였다. 대동아공영권 권역이 확장되면서 일만지가 대동아의 중심으로 강조되고 조선과 일본, 만주가 대동아의 중심(‘자존권’)을 형성하게 된다. 김종한이 동경과 서울을 동등한 각각의 ‘지방’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도 김종한은 좌담회 『새로운 반도 문단의 구상』(『녹기』, 1942년 4월)에서 ‘신지방주의’를 설명하면서 “몇 개의 지방이 모여 하나의 중앙이 됩니다. 반드시 동경이 중앙은 아닙니다.”<sup>28)</sup>라고 거듭 강조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김종한의 ‘신지방주의’에서 ‘지방’은 일본/조선의 관계가 아닌 대동아라는 더욱 넓은 범주에서의 ‘지방’ 개념이었던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지방주의’는 대동아의 지정학적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 3. 최재서의 ‘신지방주의 문학론’과 스코틀랜드문학

『국민문학』에서 김종한의 ‘신지방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은 최재서였다. 하지만 『국민문학』의 책임편집이자 ‘국문문학론’의 적극적인 구축자라는 최재서의 위상으로 하여 ‘신지방주의’와의 연관성보다는 ‘국문문학론’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조명되었다.<sup>29)</sup> 하지만 최

28) 『좌담회: 새로운 반도 문단의 구상』(『녹기』, 1942년 4월),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좌담회 선집』, 역락, 2009, 322면.

29) 최재서의 ‘국문문학론’ 논의에 관한 글로는 앞서 언급한 고봉준, 박은희의 논문 외에 다음과 같은 글들도 주목을 요한다. 이상욱, 『최재서의 ‘질서’의 문학과 친일파시즘』, 『우리말글』50, 우리말글학회, 2010; 이원동, 『완전한 존재를 향한 불가능한 꿈: 최재서의 ‘국민문학’ 담론의 심리 구조』, 『어문론총』5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이혜진, 『신체제 시기 최재서의 ‘국문문학론』, 『한국학』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미하라 요시아키, 장세진 옮김, 『보편주의와

재서의 ‘국민문학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이 ‘국민문학’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 최재서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조선적인 것’, 즉 ‘조선적인 독창성’을 보존하는 길이었다. 조선문학의 ‘조선적인 독창성’ 보존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최재서는 김종한의 ‘지방’ 개념을 수용하여 그것을 문학론으로 발전시켜 이론화시키고자 하였다.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에 대해서 최재서는 처음부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문학은 일본문학의 일익으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문학은 말할 것도 없이 국어로 쓰는 것이 원칙<sup>30)</sup>”이라고 말했다.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어 창작을 쉽게 수긍하고 나섰지만 조선문학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좌담회 『조선문학의 재출발을 말한다』(『국민문학』창간호, 1941년 11월)에서 최재서가 제시한 조선문학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는 일본에 완전히 동화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적인 것’을 보존함으로써 일본문학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길이었다. 최재서는 후자의 경우를 강하게 주장했고, 이 문제를 두고 좌담회에서 조선문인협회 간사장인 요시무라 고도(芳村香道),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인 가라시마 다케시(幸島驍), 경성일보 학예부장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등 일본지식인들과 팽팽하게 대결한다. 일본지식인들 입장에서 ‘조선적인 것’은 ‘특수성’, ‘로컬컬러’, ‘독자성’으로 인식되면서 의식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될 대상으로 치부되었고 최재서 측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이론화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상반되는 입장이 대립하게 된 데에는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국민문학’에 대해, 그리고 ‘지방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의 ‘지방성’ 문제에

‘보편성’의 차이: 스코틀랜드 계몽과 국민문학, 『한국학연구』2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30) 최재서, 『국민문학의 현단계』, 노상래, 앞의 책, 71면.

대해 모두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재서의 입장에서 ‘국민문학은 ‘이제부터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었고 그것은 기존의 일본문학과는 다른 것이었다.

최재서: 그렇습니까. 실제로 조선의 문학이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문화의 일익으로서 재출발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일본문화 그 자체가 역시 일종의 전환을 하게 되는 셈이죠. 좀 더 넓은 것이 되겠지요. **조선 문화가 전환함으로써 지금까지 내지의 문화에 없었던 어떤 하나의 새로운 가치가 부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sup>31)</sup>(강조·인용자)

일본문학의 하나로서 조선문학이 ‘국민문학으로 편입될 때 조선문학은 그 ‘조선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편입되어야 ‘국민문학이 더욱 풍성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최재서의 입장이다. 말하자면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대상으로서의 ‘국민문학은 외부의 다양한 이문화를 받아들이고 포용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만 더욱 풍성한 ‘국민문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조선문학의 ‘조선적인 것’을 거부할 경우, 최재서는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선문학의 ‘조선적인 것’은 일본문화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는 계기가 되며 ‘새로운 일본문학’을 풍성하게 구성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조선적인 것’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최재서는 영국문학에서의 조지프 콘래드(Joseph Conrad)의 예를 든다. 폴란드 출신의 영국 작가라는 특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콘래드는 영어를 나중에 배워 작가로 성공한 사람이다. 콘래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은 영문학에서 해양문학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써 영문학이 더욱 풍성해졌다고

31) 「좌담회: 조선문단의 재출발을 말한다」(『국민문학』창간호, 1941.11), 앞의 책, 35면.



보았다.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의 한 특징을 영문학 속에서 콘래드의 문학에 견주어 어필한 것이다. 이것은 최재서가 구상했던 스스로의 독창성을 보존하면서 ‘국민문학’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조선문학의 한 미래상이기도 했다.

사실 최재서가 조선문학을 스코틀랜드문학에 비유한 것도 ‘조선문학의 독창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콘래드의 예시와 동일선 상에 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문학의 현단계』에서 최재서는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을 아일랜드문학이 아닌 스코틀랜드문학에 비유하고 있다.

조선문학을 논하는 경우, 그것을 규슈문학이나 북해도문학과 비교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일본의 지방문학으로 파악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틀렸다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자는 결코 동렬에 나란히 놓일 성질의 것은 아니다. 조선문학은 규슈문학이나 동북문학이 아니면 대만문학 등이 가지고 있는 지방적 특이성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 그것은 **풍토적으로나 기질적으로도 다르다. 따라서 사고형식상으로 내지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학 전통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도 내지와는 다른 문제와 요구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도 조선 문학은 이들 현실과 생활 감정을 소재로 하게 될 것이므로, 내지에서 생산되는 문학과는 상당히 다른 문학이 될 것이다.** 굳이 예를 찾는다면, 그것은 영국문학에서 스코틀랜드문학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것은 **영문학의 일부이지만 스코틀랜드적 성격을 견지하여 다수의 공헌을 하고 있다.** 또 언어 문제가 시끄러웠던 때에 자주 조선문학을 아일랜드문학에 비교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그것은 위험하다. 아일랜드문학은 역시 영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정신은 처음부터 반영(反英)적이며 영국으로부터의 이탈이 그 목표였다.<sup>32)</sup>(강조-인용자)

32) 최재서, 앞의 글, 71-72면.

다수의 조선지식인들이 아일랜드를 ‘일본의 조선’으로 생각하면서 조선과 아일랜드를 등치시키고 있을 때 최재서는 아일랜드가 아닌 스코틀랜드와 조선을 같이 보았다. 최재서의 이와 같은 주장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스코틀랜드는 아일랜드와 합병되면서 영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였지만 여전히 스코틀랜드적인 특징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는 측면이다. 스코틀랜드적인 특징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특히 문학적인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문학 강의를 개설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에서 수학한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였고 그의 강의를 가장 열심히 청강한 학생 중의 하나가 바로 『사뮤엘 존슨 전기』의 작가로 유명한 제임스 보스웰(James Boswell)이었다. 미하라 요시아키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보스웰이 ‘영문학의 왕’으로 불리는 존슨을 만나는 첫 장면을 최재서는 어떻게 읽었을까하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맥락에서 최재서가 스코틀랜드를 언급한 것의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sup>33)</sup> 이런 맥락에서 스코틀랜드를 읽을 때 최재서의 언급은 상당히 시사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재서의 언급 중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영문학의 일부분이지만 스코틀랜드적 성격을 견지하여 다수의 공헌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일본문학에서 큐슈문학이나 홋카이도문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과연 영문학 속에서 스코틀랜드문학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백여 년 전의 T·S·엘리엇도 하고 있다. 1911년 엘리엇은 그레고리 스미스(Gregory Smith)의 저작 『스코틀랜드문학: 인물과 영향(Scottish Literature: character and Influence)』을 상대로 위에서와 같은 질문을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엇이 스코틀랜드문학의 독자적인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33) 미하라 요시아키, 앞의 글, 93-94면.

진행한 영국문학의 시기 구분이 역으로 스코틀랜드문학의 존재를 입증하는 길이 되고 말았다. 이 글에서 엘리엇은 영국문학의 발전 단계를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방언이 혼재된 시기의 영국문학사, 두 번째는 영어와 스코틀랜드어가 혼재된 시기의 영국문학사, 세 번째는 특정한 지역의 지방문학사시기, 네 번째는 실질적인 차이가 해소된 시기의 영국문학사이다.<sup>34)</sup> 스코틀랜드문학의 발전사와 스코틀랜드문학의 독자성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고 있는 이 글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스코틀랜드문학’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갔던 스코틀랜드문학의 르네상스시기로 불렸던 1920~30년대에 대한 언급이다. 비록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기 사람들은 스스로없이 스코틀랜드문학을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스코틀랜드문학에 대한 연구 역시 이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문학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도 유효하며 관련 논의들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sup>35)</sup>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재서가 “스코틀랜드문학”이라고 명시한 데에는 위에서와 같은 1920~30년대 스코틀랜드문학의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과 최재서가 주목했던 부분은 스코틀랜드문학의 독자성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다. 최재서는 영국문학의 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스코틀랜드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코틀랜드문학의 존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 이 또한 최재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조선적인 것’에 대한 강조의 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의 이론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김종환의 ‘지방’ 개념이었다.

최재서는 조선문학이 하나의 지방문학인 것은 틀림없고, 하지만 조선

34) 呂洪靈, 『論“蘇格蘭文學”的獨立性』,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2018年6月第二期, 86면.

35) 2014년 9월에 진행된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무산된 사건에 대한 논평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문학적으로 볼 때 스코틀랜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주장이다(張劍, 『蘇格蘭文學, 民族主義與后殖民研究』, 『光明日報』, 2014年10月13日 12면.) 그리고 최근에 『스코틀랜드 소설사』가 출간되기도 하였다.(王衛新, 『蘇格蘭小說史』, 商務印書館, 2017.)

문학이 지방문학이라고 할 경우 지방이라는 단어는 종래와는 상당히 다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김종환을 언급하면서 그의 『일지의 윤리』의 ‘지방론’ 부분을 인용하고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이어간다.

지방에 각각의 문화적 단위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금후 일본문화에 부과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다. 모든 문화적 설비와 인재가 동경에 집중되어, 지방은 다만 그 형식적 모방에 열중하고, 더욱이 조악한 유럽의 퇴폐문화가 미국의 문화였던 것처럼 동경의 문화가 한 때의 추태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신 이번에는 국민문화의 이름으로 어떤 종류의 형식주의가 획일적으로 강제될 위험이 있다. 당연히 국민문화는 국민 전체가 지지하고, 애호하고, 연마해야 할 문화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을 동경으로부터 경성으로 옮겨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의 표준적 문화이며, 일본국민이 건설한 문화에 근거하여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 하나의 전통이며 기준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또 대동아 제국민에게는 규범이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국민 문화는 형식적 모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적용을 권유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국민문화가 각 지방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구상화되는가는 결국 국민 전체의 비판 능력과 창조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각 지방에 문화적 단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36)</sup>

중앙문화에 대한 지방문화의 맹목적인 모방의 폐단을 지적한 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문화라는 이름으로 통일적이고 획일화되는 문학/문화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견제가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문화가 중앙문화에 대한 모방을 통해 유행될 경우 그것은 퇴폐문화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 “추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

36) 최재서, 앞의 글, 77-78면.

다. 이런 이유에서 각 지방마다 ‘문화적 단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여기서 ‘문화적 단위’라는 것은 사실 그 지방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를테면 일종의 ‘지역적 독창성’인 것이다. 조선문학이 ‘조선적인 독창성’을 보존하면서 ‘국민문학’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국민문학’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에 있어서도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의 ‘문화적 단위’를 확실하게 건설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국민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몇 개의 지방이 모여 하나의 중앙을 형성하듯이 여러 지방의 문화들이 모여 하나의 ‘중앙문화’인 ‘국민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국민문학’의 형성에 대해 최재서는 그것은 양방향적이고 동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문학은 전통의 유지라는 이름으로 순수화의 도를 높여가야 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신질서의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이민족에 대한 포용도 함께 실천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족의 문화를 포용하면서 일본문화의 순수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새롭게 형성되는 문학이나 문화일 경우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그 ‘새로움’을 위해서 ‘지방문학’, ‘지방문화’는 반드시 그 지방의 독창성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문학이나 문화가 바로 ‘국민문학/국민문화’로 거듭나는 것이었고 이러한 최재서의 구상과 논리 속에서 지방의 독창성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김종한의 ‘신지방주의’였다. 따라서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지방주의 문학론’인 셈이다.

#### 4. ‘조선문학’의 길, ‘국민문학’의 아포리아

『국민문학』지를 중심으로 김종한, 최재서에 의해 전개된 ‘신지방주의론’은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이 가야할 길을 제시한 것이었고 이는 어느 정도 당시 조선지식인들의 공감을 샀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조선

적 것'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공감을 받았고 또 '조선적인 것'의 문제로 하여 일본지식인들과 더욱 치열하게 대결하였다.

'조선적인 것'의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지식인과 일본지식인들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혔던 장면은 좌담회 「조선문단의 재출발을 말한다」와 「국민문학의 1년을 말한다」(『국민문학』, 1942년 11월), 「시단의 근본 문제를 말한다」(1943년 2월)에서 확인된다. 첫 좌담회였던 「조선문학의 재출발을 말한다」에서는 지방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이라는 점에서는 쉽게 합의를 보았지만 지방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의 '조선적인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둘러싸고는 의견의 공방이 오갔다. '조선적인 것'의 문제는 그 후에도 여러 장소에서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었다.

유진오: 일본문학의 틀 밖에 단순히 로컬컬러를 중심으로 한 조선문학이 있다고 보는 기존의 사고방식은, 앞으로는 아무래도 허용될 수 없다, 이제부터 단순한 로컬컬러의 지방문학으로는 단 된다, **무언가 철학적인 새로움과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좋은 것을 살려 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sup>37)</sup>(강조-인용자)

인용문은 좌담회 「국민문학의 1년을 말한다」에서 '조선문학의 지위'를 논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조선적인 것'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것이 로컬컬러와 연관되는 것에 대해 유진오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발언이다. 유진오는 '조선적인 것'이란 단지 로컬컬러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새로운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라야 함을 언급한다. 이에 대해 스기모토(시인-필자 주)는 '최재서씨와 같은 사고방식이군요'라고 하면서 유진오의 주장이 김종환, 최재서를 중심으로 한 '신지방주의 문학론'의 맥락에 놓여있음을 간과한다. 이는 일본지식인들도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적인 것'의 문제

37) 「좌담회: 국민문학의 1년을 말한다」, 앞의 책, 291면.

가 이번에는 좌담회 『시단의 근본 문제를 말한다』에서 ‘조선적인 특수성’으로 인식되면서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로 다시 거론된다.

테라모토<sup>38)</sup>: 그러나 어쨌든 옛날에 비해 조선문학의 특수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규슈 문학이나 홋카이도 문학이 언급되었는데 단지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로는 규슈 문학, 홋카이도 문학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경우도 그런 특수성은 사라져가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조선은 지금까지는 외지였는데 어느새 내지권(內地圈)에 들어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옛날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것보다 큰 국민의식이 양양되고 있습니다.<sup>39)</sup>

김중환: 낡은 의미의 특수성이라는 사고방식은 있어서도 안 되고, 사실 그런 것은 최근에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미의 특수성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세계사의 동향이기도 한데, 세계주의에서 일종의 새로운 지방주의로 돌아간다는... 따라서 향토적인 것이 더욱 강조되어도 좋습니다. 다만 그럴 때의 마음가짐이 문제일 텐데, 그런 향토성은 일본문학을 만들어내는 하나하나의 요소이자 단위가 됩니다.<sup>40)</sup>

최재서: 테라모토 씨가 말하는 특수성은 결국 지금까지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뒷받침된 특수성이 아닐까요. 그런 특수성은 그대로 두면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큰 국민성 속에서 살아가는 특수성, 요컨대 그 속에서 일으켜 세워야 하는 특수성입니다. 풍토

38)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문과 출신으로 사토 기요시의 제자이고 시인이다 『조선시인선집』을 펴낸바 있고 일제말기에는 국민문학계를 주도했으며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문화과장을 지낸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39) 『좌담회: 시단의 근본 문제를 말한다』(『국민문학』, 1943년 2월), 앞의 책, 337-388면.

40) 위의 글, 388면.

적인 것과 산업 입지로 보더라도 조선에는 내지와는 구별되는 생활과 문  
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산업과 풍토,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것  
과 어울리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에 급격히 일체화되면서, 동시  
에 그 특수성은 좀 더 강고한 지반 위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요?<sup>41)</sup>

데라모토, 김종한, 최재서가 각각 인식하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데라모토의 입장에서 조선문학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조  
선문학의 위상과 관련되는 문제였다. 예전의 조선문학은 큐슈문학이나  
훗카이도문학에 비견되었는데 그때의 조선문학은 지역적 특성이라는 측  
면에서는 특수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특수성이 많이 사라졌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이 “내지권”에 들어오면서 조선문학이 많이  
일본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데라모토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김  
종한은 “새로운 지방주의”의 발전 추세 속에서 그것은 “넓은 의미의 특수  
성”이라고 반박한다. 즉 기존의 중앙/지방의 논리가 아닌 ‘신지방주의’의  
층위에서 사유해야 함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최재서 역시 김종한과 동일  
한 맥락이다. 데라모토의 논리 속에서라면 조선문학의 특수성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특수성이라는 것은 “국민성 속에서  
살아나는 특수성”, “일으켜 세워야 하는 특수성”이며 이는 데라모토가 주  
장하는 그런 류의 특수성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한다. 즉 데라모토는 여전  
히 중앙/지방의 논리 속에서 일본과 조선을 위계화하고 있고 김종한, 최  
재서는 ‘신지방주의’의 논리 속에서 중앙으로 자처하는 일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지방으로서의 조산’을 각자 다르게 위계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문학’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데라모토의 경우 ‘국민문학’은 일본문학의 연장이었던 데에 반해  
조선지식인들의 입장에서 ‘국민문학’은 다양한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포용

41) 위의 글, 389면.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었다. 때문에 ‘조선적인 특수성’은 새로운 ‘국민문학’을 구성할 한 부분으로서 반드시 살려야 하는 대상이었다. 또한 ‘특수성’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 데라모토의 비롯한 일본지식인들의 입장에서 ‘조선문학의 특수성’에서 ‘특수성’은 보편성 속에 흡수되는 그런 류의 특수성이었고 최재서를 비롯한 조선인의 입장에서 ‘특수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독창성이었다. 이를테면, 이혜진의 표현처럼 최재서의 독창성이라는 것은 모방이나 파생이 아니라 어떤 유기적인 원리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그 자체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를 형성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sup>42)</sup> 즉 그것은 변화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선문학에 고유하는 것의 일종인 것이다. 때문에 설상 일본어로 창작하더라도 ‘조선적인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데에 그 핵심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김종한, 최재서는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 시인들에게 조선시를 쓸 것을, 나아가 조선인이 될 것을 요구한다.

최재서: 요컨대 조선문학은 일본 국민문학의 일익(一翼)으로서 국어로 쓰지만 여전히 조선문학입니다. 반도인이 쓰든 내지인이 쓰든 어쨌든 조선의 생활과 그 문제를 취급하여 오늘날 일본이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sup>43)</sup>

최재서가 강조하는 조선문학의 핵심은 설령 일본어로 쓴다고 할지라도, 또 일본인이 쓴다고 할지라도 오직 ‘조선의 문제와 생활’ 나아가 ‘조선적인 독창성’을 다룰 경우 그것은 충분히 조선문학으로 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위에서 말하는 조선인이 되고, 조선시를 써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시인들이 “조선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곳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보고 여기서 시인

42) 이혜진, 앞의 글, 280면.

43) 『좌담회: 시단의 근본 문제를 말한다』(『국민문학』, 1943년 2월), 앞의 책, 386면.

으로서 안심입명(安心立命)하겠다는 마음이 없”(384)이, 또 “반도에 있는 내지인 문인이 이곳에 정착하지 않고 있는 모습”(386)은 조선문학 창작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테라모토가 조선문학은 일본문학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최재서, 김중환은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조선인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창작해야 비로소 조선문학, ‘국민문학’이 가능해진다고 응수한다. 조선문학의 동화를 거부했던 것처럼 조선 거주 일본인들 역시 조선인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처럼 ‘국민시단의 창건은 지난한 길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국민문학’ 건설의 지난한 길이기도 했다. ‘국민문학’의 기획을 둘러싸고 조선지식인들과 일본지식인들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들은 같은 문제를 두고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말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동어반복적인 양상을 연출해갔으며 그 와중에 ‘국민문학’은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말기 『국민문학』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신지방주의 문학론’의 전개는 이처럼 좁혀질 수 없는 혹은 해결할 수 없는 ‘국민문학’의 아포리아를 그대로 전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 5. 맺으며

이상 살펴보았듯이 이 글은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식민지말기 『국민문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국민문학’의 기획은 조선문학이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조선적인 특징들을 버리고 완전히 일본문학으로 동화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적인 독창성을 보존하면서 일본문학의 한 지방문학으로 존재하는 길이었다. ‘신지방주의’는 조선문학이 스스로의 독창성을 보존하면서 ‘국민문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한 방법론이었고 이런 측면에서 당시

조선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신지방주의’는 김종한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이 최재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지방주의’는 ‘김종한의 신지방주의’로 불리거나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로 불리면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본고는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은 김종한, 최재서에 의해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제시했다. ‘신지방주의’의 경우, 김종한에 의해 새로운 ‘지방’ 개념이 제시되었고, 그것을 조선문학에 대입하여 ‘신지방주의 문학론’으로 이론화시킨 사람이 최재서였다. 김종한의 ‘신지방주의’는 지금까지 「一枝의 윤리」(『국민문학』, 1942년 3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의 ‘신지방주의’를 완성시킨 글은 『본연의 자세에 대한 담의』였고 그가 이런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었던 이론적 근거는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었다.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한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지방주의 문학론’이었고 그 핵심은 ‘조선적인 독창성’이었다. 최재서의 ‘독창성’은 특수성이나 향토성, 로컬컬러와도 다른 것이었고 그것은 모방이나 파생이 아니라 어떤 유기적인 원리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그 자체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일종의 오리지널리티였다. 조선지식인들은 이런 오리지널리티를 통해 조선문학의 존재를 이어가고자 했고 이것이 식민지말기 조선지식인들이 고집했던 조선문학의 길이었다. 하지만 조선문학의 독창성을 기조로 하는 ‘신지방주의 문학론’을 두고 조선지식인들과 일본지식인들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들은 같은 문제를 두고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말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동어반복적인 양상을 연출해왔으며 그 외중에 ‘국민문학’은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말기 『국민문학』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신지방주의 문학론’의 전개는 『국민문학』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표면화 과정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국민문학’의 한 이상이기도 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국민문학』

藤石貴代·大村益夫·沈元燮·布袋敏博 編, 『金鍾漢全集』, 綠蔭書房, 2005.

최재서 저, 노상래 옮김, 『전환기의 조선문학』,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

문경연 외 옮김, 『좌담회로 보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2. 단행본

김윤식, 『최재서의 『국민문학』과 사토기요시 교수』, 역락, 2010.

김재용, 『풍화와 기억: 일제 말 친일 협력 문학의 재해석』, 소명출판, 2016.

오태영, 『오이디푸스의 눈: 식민지 조선문학과 동아시아의 지리적 상상』, 소명출판, 2016.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좌담회 선집(1939~1944)』, 역락, 2009

정중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제국적 주체를 향한 욕망과 분열』, 창비, 2011.

3. 논문

고봉준, 『전형기 비평의 논리와 국민문학론: 최재서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24,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곽은희, 『감각의 조형술: 이비투스과 로컬리티 사이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에 대하여』, 『인문연구』7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김도경, 『태평양전쟁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향토 담론』, 『우리말글』50, 우리말글학회, 2010.

김양선, 『세계성, 민족성, 지방성: 일제 말기 로컬 상상력의 층위』, 『한국근대문학연구』25, 한국근대문학학회, 2012.

노리타케 가즈오, 광형덕 옮김, 『김종환에 대한 추억』, 『근대서지』12, 근대서지학회, 2015.

미하라 요시아키·김동식·윤대석, 『국민문학 재고』, 『한국학연구』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미하라 요시아키, 임경화 옮김, 『국민문학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4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미하라 요시아키, 장세진 옮김, 『'보편주의'와 '보편성'의 차이: 스코틀랜드 계몽과 국

- 민문학』, 『한국학연구』2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 박광현, 『국민문학의 기획과 전망: 잡지 『국민문학』의 창간 1년을 중심으로』, 『배달말』37, 배달말학회, 2005.
- 박수연, 『신지방주의와 향토』, 『한국근대문학연구』25, 한국근대문학회, 2012.
- \_\_\_\_\_, 『로컬의 낭만, 식민의 실재: 김중한의 『설백집』과 백석의 만주시편들』, 『비평문학』74, 한국비평문학회, 2019.
- 박지영, 『김중환 「정원사」론』, 『민족문화사연구』56,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4.
- \_\_\_\_\_, 『김중환 『설백집』 연구: 번역과 일제말기 조선문학의 혼종성』, 『세계문학비교연구』53, 세계문학비교학회, 2015.
- \_\_\_\_\_, 『김중환과 『국민문학』의 시인들: 일제말기 ‘국민시’ 연구』, 『외국문학연구』7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9.
- 심원섭, 『김중환의 전향(轉向) 과정에 대하여』, 『한국학』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심정보, 『태평양전쟁기의 일본 지정학 사상과 국민학교 지리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2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5.
- 오무라 마스오, 『일제 말기를 살았던 김중환』,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2014.
- 오태영, 『향토의 창안과 조선문학의 탈지방성』, 『한국근대문학연구』제7권제2호, 한국근대문학회, 2006.
- \_\_\_\_\_, 『지방문학, 국민문학, 세계문학: 식민지 후반기 조선문학의 존재 형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 윤대석,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 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 이상욱, 『1940년대 전반기 국민문학론의 혼란과 문학의 가능성』, 『우리말 글』61, 우리말글학회, 2014.
- \_\_\_\_\_, 『최재서의 ‘질서의 문학과 친일파시즘』, 『우리말글』50, 우리말글학회, 2010.
- 이원동, 『『국민문학』의 좌담회 연구』, 『어문론총』48, 한국학언어학회, 2008.
- \_\_\_\_\_, 『완전한 존재를 향한 불가능한 꿈: 최재서의 ‘국민문학’ 담론의 심리 구조』, 『어문론총』52, 한국학언어학회, 2010.
- 이진일, 『‘생존공간’(Lebensraum)과 ‘大東亞共榮圈’ 담론의 상호전이: 칼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적 일본관을 중심으로』, 『독일연구』29, 한국독일사학회, 2015.
- 이혜진, 『신체제 시기 최재서의 ‘국민문학론』, 『한국학』33, 한국중앙연구원, 2010.
- 임성모,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의 ‘지역’과 ‘세계』, 『세계정치』제26집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2005.
- 채수도, 『전전(戰前) 일본지정학의 성립과 전개』, 『大丘史學』139, 대구사학회, 2020.

- 최현식, 『일제 말 시 잡지 『國民詩歌』의 위상과 가치(2): 국민시론·민족·미의 도상학』, 『한국시학연구』40, 한국시학회, 2014.
- 하재연, 『일제 말기 문학의 혁신에 관한 논의와 국민시의 방법론: 잡지 『국민문학』에 나타난 ‘감정’, ‘생활’, ‘향토’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60, 한국시학회, 2019.
- 후지이시 다카요, 『김종환과 국민문학』, 『사이間SAI』창간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 呂洪灵, 『論“蘇格蘭文學”的獨立性』,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2018年6月第二期
- 張劍, 『蘇格蘭文學, 民族主義与后殖民研究』, 『光明日報』, 2014年10月13日.

<Abstract>

Planning of *Kukmin-Munhak* (National Literature)  
and New Localism Theory  
—Focusing on Kim Jong-han and Choi Jae-seo

Qian Chunhua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new localism theory of *Kukmin-Munhak* (national literature). New localism was raised by Kim Jong-han for the first time, and a person who actively accepted it was Choi Jae-seo. New localism theory has been called Kim Jong-han’s new localism or the new localism theory of *Kukmin-Munhak* thus far, and both has not been classified. However,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at a new concept of “local” was raised by Kim Jong-han in terms of the new localism of *Kukmin-Munhak*, and that the concept of “local” was substituted to Joseon literature by Choi Jae-seo and was developed into new localism literature theory; namely it was formed step-by-step. Although debate on Kim Jong-han’s new localism was conducted, centered on Ethics of One Branch (*Kukmin-Munhak*, Mar. 1042), the writing that completed the debate of his new localism was “Discussion on Proper Attitude (1~4): Design of New Localism Culture (1~40). The theoretic foundation, based on which such a debate could be developed, was the geopolitical recognition on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ty Sphere. Choi Jae-seo’s *Kukmin-Munhak* theory that built up some achievements was new localism literature theory in reality, and the core of it was Joseon style originality. This was the essence of Joseon literature

that intellectuals of Joseon insisted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but the assertion could not be connected to a unified view, while repetitive battle was waged with Japanese intellectuals. The development of the new localism theory of *Kukmin-Munhak* at the end of the colonial rule period was a crisis that *Kukmin-Munhak* faced, and it was also the aporia of *Kukmin-Munhak*.

Key words: 『*Kukmin-Munhak*』, 'National literature', Local, New Localism, New localism literature theory

투 고 일 : 2020년 5월 31일

심 사 일 : 2020년 6월 1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6월 26일